

# 나, 너, 하나!

지바조선초중급학교 교원  
배수찬

《나, 너, 하나!》

2016년 학교창립 70돐을 맞은 해로부터 우리 학교에서 늘쌩 불러오던 구호이다.

지바현의 현화(縣花)인 유채꽃(菜の花)에 비겨 만들어진 이 구호는 지바학교학생들과 동포학부모들 등 온 지바동포사회의 단결과 믿음을 반영한 정신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처럼 이 구호의 사상과 생활력을 느껴본 일이 없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세계를 위협한다는 소식이 련일 보도되어 예술발표회의 개최 그자체가 걱정되는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어 예술발표회를 거행할것을 결심하였다. 무대에 선 학생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는 발표회를 대성공으로 장식할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주부터 우리 지바학교 역시 림시휴교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졸업식규모도 축소하지 않을수밖에 없어 졸업생들을 례년처럼 성대히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과 학생들을 절대로 감염시켜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으로 우리 교원들은 갈등의 나날을 보내었다.

봄방학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몇명의 교원들과 일군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4월이후 학교사업을 어떻게 밀고나갈것인가 토론하다가 한 일군선생님이 제기를 하셨다.

《학생들을 다 자동차로 통학시킵시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시는데다가 학교에 있는 자동차수도 제한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먼저 앞섰다.

그러나 정작 학부모님들에게 전화연락을 해보니 예상치 않은 대답들이 돌아왔다.

《우리 집은 보낼수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제가 책임적으로 학교까지 마중가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대답을 주시는것이였다.

뿐만아니라 다른 학생 부모님이 어려우면 자기가 주변에 살기때문에 함께 데려다줄수 있다, 요구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해달라고 말씀해주는 학부모님들이 한두분이 아니였다.

결국 4 월에 들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 더욱 확대되어 일본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것으로 하여 입학식후 휴교조치는 연장되고 자동차통학도 단념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다음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온라인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협력하겠다고 여러명의 졸업생, 동포전문가들이 떨쳐나섰다.

그 덕택으로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전국 여러 학교선생님들께서 배워주시는 수업동영상과 함께 학교독자적인 온라인수업을 실시할수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비상사태에 놓인 후부터 나는 이러한 고마운 장면에 몇번이고 접하게 되었다.

마스크착용이 절실히 요구된 즉시로 우리 학교에 2,000 장을 넘는 마스크를 기증해주신 학부모님들.

학교를 제때에 소독해야 한다고 소독액과 소독기구를 마련해주신 아버지회 역원들.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학교리싸이클작업은 꼭 해야 된다고 떨쳐나서시며 립시휴교후 과제장을 학생들에게 넘겨야 하게 되었을 때 몸소 자동차를 몰고 각 가정에 배달해주신 어머니회 역원들.

무엇보다도 학교재정사업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것을 알고는 인차 모금사업을 시작해주신 《千葉ハツキヨの会》 회원선생님들과 학교사업에 보탬으로 해달라고 올해도 지바미래기획에서 변함없이 기부금을 보내주셨으니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적는 순간에도 3 월에 조고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입학 을 기다리는 한 졸업생이 《마스크를 구할수 있었으니 우리 학교에서 리용해주십시오.》 하며 학교에 달려와주었다.

지바동포는 이러한 동포들이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 학교에 대한 정성으로 가득찬 우리 동포들이 부르는 《나, 너, 하나!》 .

그 힘, 그 정신력이 한없이 뜨겁고 굳건하기에 그 어떤 감염증도 우리를 건드릴수 없다.

아직까지도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지만 오늘의 난관을 새로운 힘으로 바꾸어 꼭 이겨내리라 믿어마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웃으며 학교에 다니는 날을 그리며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다해나갈것이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나, 너, 하나!》